

2024 초등학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3) 함덕초등학교

# “세상의 수많은 정보 검증하며 판단해야”

조작된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딥페이크 사례 배워  
디지털 기기 활용 다양한 정보 검색하며 ‘팩트체크’

학창 시절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스마트폰을 접한 어른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1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스마트폰’ 세대다. 이들은 책보다는 구글, TV 뉴스보다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다시 공유하며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선정적인 정보 혹은 선정적인 이슈에 현혹돼 가짜 뉴스를 소비하고 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미디어를 제대로 읽는 능력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35개교 소속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 본보는 이 중 7개교에서 이뤄지는 수업 현장을 찾아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함은 투명하다.’ 지난 25일 제주시 조

천읍 소재 함덕초등학교 6학년 1반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함덕초 6학년 1반 22명의 학생들은 투표함이 투명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수업을 맡은 오정심 강사는 웃으며 “사실 같지만 거짓말일 수 있고, 거짓말 같지만 사실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똑똑한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시민으로 UP’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정보의 기본적인 개념,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는 법을 비롯해 가짜 뉴스, 딥페이크 사례 등을 배우는 1교시와 학생들이 직접 태블릿 PC를 활용해 정보를 찾아서 검증해 보는 2교시로 나눠 진행됐다.

1교시 수업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퀴즈 형식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 설명했고 ‘2017년 페루 광산에서 외계인 사체가 발견됐다’, ‘5G 무선기기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확산시킨다’ 등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자 학생들은 저마다 손



지난 25일 함덕초등학교 6학년 1반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진행됐다.

을 들며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예요”라며 자기 생각을 표현했다.

오 강사는 “세상의 정보는 태산처럼 너무 많기에 정보를 선택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똑똑하게 정보를 찾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정보를 검증해 보는 2교시에는 직접 태블릿PC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블로그,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진 글에서 틀린 부분을 찾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아이답지 않은 능숙함으로 정보를 검색하

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선생님! 저 문제 답이 뭐예요?”라며 기자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답을 물어보는 순수함을 보여줬다.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오늘 수업이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며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앞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것 같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이 기사는 한라일보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기획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폐교’ 동광분교, 4·3 교육관으로...

도교육청, (가칭)제주4·3학생교육관 건립 계획  
지난 26일 용역 최종 보고... 전시·체험공간 조성

제주4·3 당시 큰 피해가 있었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옛 동광분교에 제주4·3학생교육관이 세워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가칭 제주4·3 학생교육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4·3학생교육관 건립은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4·3평화·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전국화를 위한 후세 교육의 장의 의미를 담아 추진되고 있다. 교육관에서는 제주 역사교육과 4·3 평화·인권교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육관은 도교육청의 폐교 재산인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분교에 들어설 예정이다. 동광리는 4·3 당시 큰 피해를 본 곳으로, 군경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잃어버린 마

을’ 무등이웃뿐만 아니라 마을이 초토화된 이후 동광리 주민들이 은신 생활을 했던 ‘큰넓개’, ‘도렛개’ 등이 위치해 있다.

4·3학생교육관은 부지 1만2308㎡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930㎡ 규모로 계획됐다. 교육관에는 4·3 관련 전시공간과 영상·VR 체험공간을 비롯해 4·3 교육 활동을 진행할 세미나실과 토의실 등이 마련된다. 야외에도 4·3를 상징하고 기억하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과 연계한 4·3평화·인권교육 명에 교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뿐 아니라 다양한 전시와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도민, 타 지역민들의 제주4·3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 제주 범죄예방환경 협의체 첫 구성

경찰·행정 등 5개 기관 참여

아파트·학교·공원 등 도시 생활 공간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다양한 안전 시설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제주지역 협의체가 구성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5일 경찰단 회의실에서 범죄예방환경(CPTED)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CPTED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공공장소의 가시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제어해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구성된 CPTED 협의체에는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건축경관과, 행정시 도시재생과·건설과·건축과·공원녹지과, 제주소통협력센터 등 5개 기관·13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협의체는 CPTED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예산 지원 방

안 등을 논의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범죄예방환경 개선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바다에 수백kg 폐그물 ‘등등’

해경 최근 3년 7.5t 수거... “선박 사고 야기”

제주 해안에서 선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다량의 폐그물이 발견되면서 해경이 수거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제주 외항 동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어망 스쿠루 감김 등 선박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망과 폐그물 등 부유물은 해상에 떠다니며 항해하는 선박에 부유물 감김 사고를 일으킨다.

제주 관내 해상에서 최근 3년간 부유물 감김에 의한 사고 건수가

연평균 50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부유물 및 운항 장애물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제주해경은 2021년 1500kg, 2022년 1000kg, 2023년 5000kg의 해상부유 폐그물을 수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폐그물 등을 적극적으로 수거해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독자제보 750-2232



마라도 즐기는 관광객들 4월 마지막 주말인 지난 27일 국토최남단인 마라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유채꽃향기를 맡으며 걸어가고 있다. 강희민기자

SINCE 1989  
한라일보 35주년

## 행복한 동행, 함께 만드는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동남종합건설은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섬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제주도민들께서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合資 會社 東南綜合建設